

한전 등 연말 입주...활기 넘치는 빛가람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 네번째 입주 기반시설 갖추며 아파트·상가 분양 인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일자리 크게 늘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의 네 번째 입주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 새 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가는 등 빛가람도시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빛가람도시 아파트와 상가 분양도 인기를 끄는 등 혁신도시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작업 순풍=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나주로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 28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지난 29일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새 사옥에서 권영빈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환영식을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부지 9193㎡, 건축연면적 4003㎡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10개 부서에 10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다.

또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하게 된다.

현재 나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6개 중 '나주 시대'를 연 기관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4개 기관이다.

또 올 연말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공정은 44~96%에 달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도 사옥 공사에 들어가 2015년이면 나주로 이사를 오게 된다.

기반 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다. 나주역~혁신도시를 잇는 도로도 이미 완공됐고 상수도, 전기공사 등도 완료됐다.

◇혁신도시 부동산 열기도=이전 기관들이 하나 둘 나주에 동지를 틀면서 부동산도 덩달아 들쭉이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 A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에서 100% 마감됐다. 지난 1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22일부터 청약 진행했던 A 아파트는 1.09대 1의 경쟁률로 100% 마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분양한 B, C 등 민영아파트는 최고 6.8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는 등 모두 100% 분양됐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혁신도시내 신규 상가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토지공사(LH)는 최근 나주혁신도시 B9블록 단지내 상가 8개 점포의 입찰결과를 발표했는데, 입찰 결과와 예정이 1억8800만원인 1층 점포가 5억3300원에 낙찰돼 281%의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모든 점포가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됐다. 이를 평(3.3㎡)당 계산하면 1층의 경우 최저 2400만원에서 최고 2880만원의 높은 낙찰가이다.

◇지난해 인력창출만 2000여명=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늘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난해 일자리만 2069명이었다. 대부분 이전 기관들의 신사옥 건설 현장의 경비와 조리원 등 임시직이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빛가람도시로 옮겨오는 9개의 이전 기관은 올해 신규 채용인력 1310명 중 112명(8.5%)을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540명의 채용인원 중 30명을 지역 인재로 우선 채용할 예정이며, 한전KPS(주)는 376명 중 25명, 한국농어촌공사 259명 중 30명, 한국인터넷진흥원 40명 중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명 중 11명, 한국전력거래소 29명 중 3명, 한국콘텐츠진흥원 27명 중 5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6명 중 1명 등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kwangju.co.kr

빛가람도시는

- 위치=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
- 면적=733만4000㎡
- 계획 인구=5만명 / 2만가구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
- 사업비=1조4175억원
- 이전기관=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

추진 상황은

- 공공기관 이전=4개 기관 완료·연내 6개기관 입주
- 기반시설 공사=부지조성·상하수도·전기공사 완료
- 연결도로 공사=나주역~혁신도시 2013년 11월 개통
- 동·서측 도로 공정은 73~78%

경제효과는

- 생산유발효과=8조5744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3조8259억원
- 고용유발효과=7만5270명
- 소득유발효과=2조824억원

문화관광시설은

- 나주호관광단지외 연계한 다수의 골프장
- 국립영산강고교박물관
- 동양 최대의 나주영산대마파크
- 천연염색문화관·반남고분군·다시고분군 등 다양

슬로건

CI

캐릭터 (빛가람이)

약속된 미래 빛가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도시라는 의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나주 금라회 회원들이 지난 2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위원장(사진 왼쪽)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8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10일 신나는 예술여행 무대 타악 퍼포먼스 '인수화풍'

2014년 복권기금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이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나주시 도래 한옥마을(양벽정)에서 개최된다.

(사)전통문화연구회 일주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한국 전통예술의 가장 큰 주제인 자연(自然)을 소재로 한 타악 퍼포먼스 '인수화풍'(人水火風)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작품 중간에 해설과 함께 물과 불이라는 원초적인 소재를 사용해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해 진행되는 등 지루한 국악이라는 편견을 깨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전통문화연구회 일주 관계자는 "'인수화풍'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명의 호흡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해 다양한 악기로 내고, 달고, 맷고, 푸는 자연을 표현한 작품"이라며 "물과 불, 바람이라는 원초적 느낌을 원초적 소리로 타악으로 표현해 재미와 화려한 불거리를 보여준 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한국스리엠 노사 상생 약속 단협·해고자 재고용 합의



한국스리엠(대표 정병국) 노사가 5년만에 단체협약과 해고자 재고용 등 현안 문제에 합의하며 상생·발전 약속했다.

한국스리엠은 지난 28일 나주공장 대회의실에서 정병국 한국스리엠 대표, 심종섭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장, 박근서 한국스리엠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연간 3000시간,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이다. 또한 노사는 현재 진행중인 고소·고발 및 징정 사건 등을 취하하고, 해고자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6월 1일 이내 재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병국 대표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스리엠은 노사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더욱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심종섭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노사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한국스리엠이 모범적 노사문화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창업 32주년 KJB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